



KOFA ... 신규태 고문, 김어진 사무차장
대사상 수상

MONTHLY **KOFA**
코파의

정음

Ruko Pinangsia Block B No.25, Tangerang, Jl. Boulevard Jend. Sudirman, RT.001/RW.009,
Panunggan Bar., Kec. Cibodas, Kota Tangerang, Banten 15138, Indonesia
Tel. 0856 9113 2325, 0821 1122 8827 E-mail : indokofa@gmail.com

Vol. **137**
2026/02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gaeto@gmail.com

KOFA 제인니한국신발협의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2026년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서 ‘신년인사회’ 열려

윤순구 대사 “동포들의 자부심 되는 모국... 실질적 조력과 섬김의 공간 만들 것”
김종헌 한인회장, “적토마의 기운으로 여는 새로운 내일... 안전·차세대·소통의 든든한 울타리”



▲2026년 신년인사회, 기관장 및 수상자들과 기념촬영 (사진=한인뉴스)

2026년 새해를 맞아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지난 1월 7일, 한인동포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신년인사회는 윤순구 신임 대사와 김종헌 한인회장을 비롯해 한인사회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및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외빈 소개, 윤순구 대사의 신년사, 김종헌 한인회장의 인사말, 표창 전수 및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윤순구 신임 대사는 신년 축사에서, “해외에 나와 사는 동포들을 뵈 때마다 모국인 대한민국이 단단해야 어깨를 펴고 자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을 절감한다”며 “모국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공간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을 찾아내어 진심으로 섬기는 열린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시상식과 관련해 “동료들이 인정해 준 상이라는 점에서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의 상은 그 어떤 상보다도 값지고 중요하다”며 깊은 축하를 전했다. 김종헌 한인회장은 적토마(赤兎馬)의 기운을 담은 힘찬 신년 메시지를 전했다. 김 회장은 “지혜와 기운이 넘치는 새해를 맞아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바꿔낸 한인 사회의 위대한 저력을 믿는다”며 2026년 한인회의 3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김 회장은 비상 대응 시스템 강화를 통한 안전하고 보호받는 한인 사회, 정체성 교육과 지원을 통한 차세대가 꿈을 꾸는 미래 지향적 한인 사회, 다양한 교류

와 민간 외교를 통한 소통하고 하나 되는 열린 한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함께 할 때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확신으로,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표창장 전수 및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윤순구 대사는 제 19회 세계한인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자 국무총리 표창을 이규백 재인도네시아 봉체협의회 수석부회장에 직접 전달하고,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한 총 46명에 대한 대사 표창도 수여했다. 참석자들은 서로 새해 덕담을 나누고 안녕을 기원하며 기념촬영을 하면서 자리를 마무리했다. [한인뉴스/자카르타경제신문]

수상을 축하합니다!

신규태 고문 대사표창 수여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 신규태고문은 평소 지역한인동포를 위한 헌신과 봉사로 정평나 있었으며 금번 대사표창은 재인니대한체육회 명예고문으로 표창을 받게 되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한인동포를 위한 활동은 건강한 한인동포사회를 만들어나는데 초석이 되었으며 한인동포의 선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해 왔었다.

KOFA 김어진 사무차장 대사표창 수여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 김어진 사무차장은 평소 지역한인동포를 위한 헌신과 봉사 그리고 다문화가정 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활동해 다문화가정후원회 주전으로 표창을 수여받게 되었다.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 .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https://hanjin.co.id/>

Jl. Raya Serang – Jakarta KM. 80, Kel. Kaserangan, Kec. Ciruas –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https://hanjin.co.id/>

IMF, 인도네시아 2026년 성장률 5.1%로 상향



▲자카르타 수디르만 도로(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국제통화기금(IMF)이 인도네시아의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하며 2026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1%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제시한 4.9% 전망치보다 높아진 수치다.

IMF는 19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업데이트'에서 2027년 성장률 전망도 기존 5.0%에서 5.1%로 상향했다. 이번 전망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연례 협의(제4조 협의) 결과와 일치하며, IMF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를 재확인했다.

IMF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회복력 근거로 ▲2.5% 수준의 물가상승률(목표 범위 중간값) ▲관리 가능한 경상수지 적자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제시했다.

이번 상향 조정은 IMF가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월 보고서 3.1%에서 3.3%로 상향조정할 때 따른 것이며, 2027년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3.2%로 유지했다.

다만 IMF는 세계 무역 갈등, 경제 불확실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2045 골든 인도네시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통화 및 환율 정책을 통한 안정 유지, 신용 회복에 따른 거시건전성 정책의 점진적 정상화, 거버

넌스·무역 통합·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가속화를 권고했다.

IMF 이사회는 인도네시아 당국이 물가를 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2025년까지 추가적인 통화완화가 성장 촉진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심화와 통화정책 전달 경로 개선, 강화된 규제·감독에 기반한 금융시스템 안정성도 성과를 언급했다. 재정 부문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재정 규칙에 따른 신중한 재정 운용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IMF의 성장률 전망이 2045년 고소득국 진입에 필요한 연 6~7% 성장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IMF의 평가가 자체 전망과 일치한다며,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거시경제 안정과 포용적 성장을 바탕으로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재정·통화 정책 공조 강화와 구조개혁 가속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가속화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은행은 2026년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약 5.3%로 전망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코참, '제7대 출범식 및 2026 상공인의 날' 성료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 이하 코참)는 지난 1월 21일(수), 자카르타 다마이 인다 골프(Damai Indah Golf) PIK에서 '제7대 출범식 및 2026 상공인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7대 코참의 공식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와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한·인도네시아 경제 협력과 교류 확대에 기여해 온 회원 기업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관계자, 유관기관 인사, 한인 경제인 및 코참 회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출범식에서는 제7대 코참 회장단 및 사무국 소개와 함께 향후 운영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가 공유됐다.

이강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제6대 임기 동안 대기업 회원 유지 확대, 정관 개정, 한국 공공기관의 참여 강화 등을 통해 조직의 기반을 다졌으며, 회원사의 목소리를 정부·대사·유관기관에 전달하는 데 주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제7대 코참의 중점 추진 방향으로 ▲ '팀 코리아(Team Korea)' 협력 체계 강화 ▲회원 간 네트워크 확대 ▲아세안 및 글로벌 연계 강화 ▲인도네시아 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제시했다. 특히 대사관, 코트라,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정책 간담회 및 규제 개선 논의를 정례화해 기업 애로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공유·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제7대 코참 출범식 및 2026 상공인의 날 (사진=코참)

아울러 산학 연계 프로그램과 인재 양성 활동을 통해 인도네시아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코참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카르타한국학교, 현지 대학, 직업훈련기관 등 총 3개 기관에 대한 기부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이 회장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은 함께할 때 더욱 강해진다"며, "코참이 회원들에게 가장 가까운 동반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축사에 나선 강원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총영사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코참을 중심으로 '팀 코리아', 나아가 '팀 코리아. 인도네시아'로 협력의 범위를 넓혀간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7대 코참 집행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또한 김종현 한인회장은 코참이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회원 기업의 권익 보호, 네트워킹 강화, 한·인도네시아 경제 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

다. 이어 한인회 역시 코참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도네시아 사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는 성숙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참은 제7대 출범을 계기로 회원 중심의 실질적인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한·인도네시아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각종 세미나, 간담회,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자카르타경제신문]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21-3002-9087
0821-1122-8827
khong3000@gmail.com

정직하고 품질좋은 제품으로 인정받겠습니다!

— LS-AG Cable Indonesia 공식 대리점 —



PT ALJIUM GREEN NUSA





LV 케이블/Building 케이블



산업용 케이블



Overhead 케이블



Busduct



HEAD OFFICE
Ruko Dalton Extension DLNT 052-053
Jl.Scientia Boulevard, Gading Serpong,
Curug Sangereng, Kelapa Du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810
Tel: 0811 8126 7788 (한국인 상담)
0811 8430 561



www.lscns.com
www.ltag.co.id

Karawang 공장
Artha Industrial Hill
Blok E Kav 20-21, Wanajaya,
Telukjambe Barat, Karawang
Jawa Barat 41361, Indonesia
Tel: 021 3973 3988

OFFICIAL DISTRIBUTOR | 공식 대리점
PT ALJIUM GREEN NUSA

인니 관광업계, 최대 명절 르바란 특수 비관적 전망



▲발리 울루와뚜 사원에서 바라본 절벽 [자료사진=데일리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관광산업 업계가 이슬람 라마단(금식월) 종료 후 이어지는 최대 명절 르바란(또는 이돌피트리) 기간 특수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관광업계는 작년 연말 성수기 특수가 기대에 못 미쳤다면, 가계 구매력 약화와 높은 교통비 부담이 오는 3월 르바란 연휴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도네시아호텔·레스토랑협회(PHRI)는 최근 호텔 객실 점유율 하락, 평균 숙박 기간 단축, 지역별 방문객 분포 불균형 등의 지표가 관광 경기 둔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식 통계상 전체 이동량이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라고 18일 자카르타 포스트가 보도했다. PHRI 사무총장 마울라나 ‘알란’ 유스란은 “2025년 한 해를 놓고 보면 2024년에 비해 객실 점유율이 전혀 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약 4% 감소했다”며 “현재 상황은 코로나19가 막 끝나고 시장이 회복되던 2022년과 거의 비슷하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25년의 압박은 2024년과 2023년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알란 사무총장은 평균 숙박 기간도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최소 5~6일 체류가 일반적이었고, 점유율도 90%에 달했지만 지금은 평균 2~3일에 그치고 있다”며 “원래라면 성수기로 분류돼야 할 시기인데, 실제로는 평시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PHRI는 이러한 변화의 주된 원인으로 가계 소비 여력 약화를 지목했다. 여행객들이 체류 기간과 지출을 동시에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협회는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의 입국자 수 증가만으로 관광 회복을 판단하는 데 경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공항의 연간 이용객은 약 680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발리를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란 사무총장은 “불법 숙박 시설 증가와 입국자 수가 곧바로 호텔 투숙률을 의미한다는 오해가 문제”라며 “실제로 발리에 머무는 관광객이 얼마나 되는지를 다시 따져 봐야 한다. 경유객이 많을수록 체류 기간과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 관광의 중심지인 자바섬에서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족자카르타와 반둥 등 주요 도시의 경우에도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반짝 수요만 나타난 뒤 빠르게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PHRI는 이러한 흐름이 인도네시아 최대 명절인 르바란 연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정부가 항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관광 수요를 자바 외 지역으로 분산시키지 않을 경우, 관광산업의 회복은 더욱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인도네시아]

KOFA 광고를 제안합니다.

KOFA에서는 소식지를 통해 영업과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주요대상 : 신발업체, 부품업체, 및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코파소식지(월간)

특 징

- 1) 소식지는 KOFA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월 발송. 관련 회사 대표님과 그 직원 모두에게 매체 도달률 100%, 가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 2) 전달 하고자하는 정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홍보 할 수 있으므로 설득력이 높습니다.

2, 광고 상품안내

- 1) 연간(12회) 계약 혜택 : 20% 할인,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 2) 6개월(6회) 계약시 혜택 : 10% 할인,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KOFA 사무국 : 021-3002-9091 (mr. kang) 0821 1122 8827

인니, 섬유·봉제산업 60억 달러 지원... 세계 5대 생산국 목표



글로벌 무역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자국의 섬유·봉제산업을 보호하고, 특별 관리 대상 산업으로 육성하라”고 지시했다. 14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날 서부자바주 함발랑 지역에 있는 프라보워 대통령 사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 조정장관은 대통령이 이 같이 지시했다며, 섬유·봉제산업은 노동 흡수력이 크고 수출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인도네시아의 핵심 전략 산업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아이르랑가 장관은 이날 자카르타에서 열린 행사에서 “함발랑 회의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섬유·봉제산업을 유지·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 부문은 무역전쟁 국면에서도 가장 개방적이고 회복력이 강한 산업”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 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산업의 유연성, 안정적인 글로벌 수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섬유·봉제산업 수요를 바탕으로 세

계 5대 섬유·봉제 생산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장관은 “대통령은 특별 조치를 지시했다”며 “우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섬유·봉제산업은 항상 수요가 존재하고 성장세도 비교적 견조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프라보워 대통령은 섬유·봉제산업의 밸류체인을 강화하기 위한 초기 재원으로 약 60억 달러(약 101조 루피아) 투입을 승인했다. 정부는 또한 섬유·봉제산업의 통합 발전을 담당할 전담 국영기업 설립도 계획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정부는 향후 10년간 인도네시아의 섬유·봉제산업 수출액을 현재 약 4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대폭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용 규모 역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섬유·봉제산업의 고용 인원은 약 400만 명에서 600만 명으로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인도네시아]

2026년 “에이스 에너지”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사업에 본격 투자합니다.

We are Korea's No. 1 Solar Power Development & EPC, O&M Company in Indonesia.
PT. ACE ENERGY SERVICE는 인도네시아 No. 1 Developmet & EPC, O&M 태양광 전문회사입니다.

2026년부터 ACE는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더 큰 도약을 준비합니다. “ACE는 2026년, 신재생에너지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전문 기업의 역할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선도 투자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합니다.”

ACE의 핵심 투자사업 영역

ACE는 다음과 같은 미래 지향적 사업 분야에 집중합니다.

- 산업형 태양광 솔루션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 Non-CAPEX 솔루션 제안)
- OFF_GRID/IPP/PPP사업 투자/개발
- WTE, HYDROPOWER, 전기차 충전소
- BESS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시스템)와 연계된 스마트 에너지 관리

초기 자본 지출 부담, ACE가 없애드립니다!

ACE는 고객의 태양광 설치 사업에 대한 초기 자본 지출(CAPEX)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혁신적인 비(非)CAPEX 금융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투자 부담 없이 실제 RE100과 NET ZERO에 도전하세요.



* ACE는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지역에서 수많은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 즉각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
- 종합적인 관리 서비스를 통한 장기적인 최적 효과를 보장
- ESG,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목표 달성

성공적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 PT ACE ENERGY SERVICE에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연락처 : Mr. Steve Youn : 0812 9730 5553 / steveyoun.indo@gmail.com
Mr. Song Kwang Ho : 0812 8168 3844 / dragonhoya@gmail.com

미래를 여는 에너지, ACE와 함께 만드세요!
PT. ACE ENERGY SERVICE
인도네시아 No. 1 Financing - EPC - O&M 태양광 전문회사

인도네시아서 한국인 노린 기업형 ‘시 러브스캠’ 국제 조직 27명 무더기 검거

텔레그램 및 생성형 AI ‘헬로GPT’ 악용해 한국인 유인 후 몸캠 피싱 협박
 중국적 중심 다국적 조직, “한국인 피해자 신고 어려울 것” 범망 허점 노려
 韓 대사관 및 한인단체 예방활동 있다...” 한인 사회 안전 위협에 각별한 주의 필요”



▲이민총국 산하 이민감독집행국은 수도권 지역에서 온라인 러브스캠 조직원 외국인 27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2026.1.19. 사진 이민총국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인근 위성도시인 팡그랑(Tangerang) 지역 고급 주택가에서 한국인을 주 표적으로 삼은 대규모 국제 ‘러브스캠(Love Scam)’ 범죄 조직이 현지 이민국에 의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까지 동원해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이민총국은 지난 1월 19일 자카르타 남부 이민국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반딧불 팡그랑 가딩 세르퐁 등지에서 사이버 범죄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중국인 등을 포함한 외국인 27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최근 몇 년간 인도네시아에서 수

행된 이민 단속 중 최대 규모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AI 기술 악용한 신종 수법, 한국인 ‘집중 타겟’

이번에 검거된 조직은 기존의 보이스피싱을 넘어선 진화된 디지털 범죄 수법을 사용했다. 울디 유스만 이민총국장 대행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텔레그램 메신저와 연동된 변형 인공지능 시스템인 ‘헬로GPT(HelloGPT)’를 범행에 적극 활용했다.

이들은 수집된 한국인들의 개인정보와 연락처를 바탕으로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AI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메시지에 답장하며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도했고, 젊은 여성인 척 가장하여 피해자와 정서적 친밀감을 쌓았다. 이후 성적인 내용의 영상 통화를 유도한 뒤, 해당 장면을 녹화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고 협박(몸캠 피싱)하며 금품을 갈취했다.

이민국 조사 결과, 피해자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되어 전체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2주간의 숨 막히는 추격전, 고급 주택가 급습

이민국 감독 소위원회팀은 지난 2026년 1월 8일부터 16일까지 집중 단속을 펼쳤다. ▲1차 작전(1월 8일)에서는 팡그랑 가딩 세르퐁의 고급 주택가를 급습해 중국인 13명과 베트남인 1명 등 14명을 체포했으며, ▲2차 작전(1월 10일)에서는 또 다른 은신처 두 곳에서 중국인 7명을 추가 검거했다. 이어 ▲3차 작전(1월 16일)에서는 감시 대상(SOI) 명단에 올라있던 핵심 용의자 중국인 4명을 체포하며 조직망을 와해시켰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수백 대의 휴대전화와 수십 대의 노트북, PC, 모니터, 와이파이 네트워크 장비 등이 압수되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도네시아 주민등록증(KTP)과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견되었으며, 다수의 피의자가 체류 기간을 넘긴(오버스테이) 불법 체류 신분임이 확인됐다.

“한국인은 신고 안 해” ... 치외법권 노린 뽀뽀함

이들 조직이 인도네시아를 범죄 근거지로 삼은 이유는 ‘사법권의 허점’을 노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피의

자들은 자신들이 중국 국적이 고 범행 장소가 인도네시아이며, 피해자가 한국인일 경우 3국의 수사 공조가 어려워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계산했다.

특히 피해자인 한국 남성들이 성적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꺼린다는 점과, 인도네시아 당국이 자국민 피해가 없는 사건에 대해선 수사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해치는 외국인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며 이 같은 기대를 무너뜨렸다.

韓 대사관·한인단체 “예방이 최선, 한인 사회 주의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한 달이 되어가지만 주인공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과 한인단체는 사고내용과 예방 주의 대책이 없어 도마에 오르 고 있다.

한국인을 특정한 범죄 조직이 인도네시아에서 활개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와 범죄 예방 대책이 부상하고 있다.

대사관 측은 인도네시아 수사 당국과 공조하여 추가적인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현지 체류 중인 한인들이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영사 조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인동포들은 한인 단체들이 나서 정보 교류에 나서야 한다며 안전망 구축에

우려를 전했다. 한인동포주부들은 “범죄 조직이 고급 주택가에 은신하며 범행을 저지른 만큼, 우리 한인들의 거주 지역과 겹칠 가능성이 높다”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소식을 들은 한국동포들은 “최근 제3국에 거주하며 한국 내 피해자를 양산하는 초국가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모르는 사람, 특히 SNS를 통해 접근해 오는 미모의 이성이나 금전적 요구를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하고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인 IT 대표 A씨는 “주변에 수상한 행동을 하는 외국인 집단이 있거나, 비정상적으로 많은 통신 장비를 보유한 외국인들이 포착되면 즉시 한인회나 대사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울디 이민총국장 대행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 강제 추방 및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며, 관련국 대사관과 협력해 국제사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당국은 현재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잔여 조직원들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인포스트)

엘리베이터(화물용) 선택은 오케이가 최선입니다.

오케이엘리베이터

세계 어디든 함께합니다.

글로벌 엘리베이터 기업들과 쌓은 **신뢰와 기술**

오케이 엘리베이터(주)
 OK VINA ELEVATOR CO.,LTD.
 OK ELEVATOR CO.,LTD.
 PT. OKE ELEVATOR INDONESIA

화물용엘리베이터
FREIGHT ELEVATOR

승객용엘리베이터
PASSENGER ELEVATOR

식당용엘리베이터
DUMB WAITER

운반하역기계
DOCK LEVELER

INDONESIA | 이윤환
 T. +62 21-8991-9999 F. +62 21-3873-5031
 M. +62 852-1778-9098
 E. okelevatorind@gmail.com

KOREA | 이윤환
 M. +82 10-5313-8820 E. okelevator@naver.com

PT. OKE ELEVATOR INDONESIA
 Ruko plaza menteng blok c no16 lippo cikarang bekasi 17550

모든걸 저희 OK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삼성물산

인니 정부, 60억 달러 투입해 국영섬유회사 추진...업계 “민간 투자 위축” 우려



▲중부자카르타 따나야방 시장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영 섬유회사를 새로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업계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섬유 산업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노동 집약적인 산업 중 하나로, 과도한 정부 개입이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섬유·필라멘트 생산자협회(APSyF)의 레드마 기따 위라와스따 회장은 20일 “정부가 투입하겠다고 밝힌 60억 달러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업계가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해당 국영회사가 파산한 대형 섬유업체 스리텍스(PT Sri Rejeki Isman, Sritex)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국영회사는 하나의 선

택지가 될 수 있지만, 무역 정책 개선, 경쟁력 강화 인센티브, 인허가 투명성 등 전반적인 사업 환경 개선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레드마 회장은 “스리텍스를 살리는 데만 최소 8조 루피아(약 4억7,200만 달러)가 필요하다”며 “60억 달러는 민간 투자를 촉진할 경우 최대 6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리텍스는 한때 동남아 최대 규모의 종합 섬유업체 중 하나였으나, 2024년 10월 파산 선고를 받은 뒤 2025년 3월 공식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2025년 1~2월에만 1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해고됐다. 이에 뿌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설비 임대, 신규 투자자 유치, 다른 기업으로의 인력 흡수 방안 등 해고 노동자 재고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뿌라스띠오 하디 국무장관은 19일 “새로 설립될 국영 섬유회사는 스리텍스 사태를 포함해 의류·섬유 산업 전반의 문제 해결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뿌라보워 대통령이 지난 1월 11일 서부자바 함발랑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 이후, 국무펀드 단안따라(Danantara)를 통해 60억 달러를 출자하겠다고 지시하면서 공식화됐다. 뿌라스띠오는 19일 기자들에게 “스리텍스는 약 1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제적 활동이 지속된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구제되어야 한다”며, 필요시 정부가 섬유 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야구스 구미왕 까르따사스미따 산업부 장관도 스리텍스 청산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스리텍스가 청산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새로운 소유 구조를 통해 회생할 수 있다면 그 편이 낫다”고 말했다. 다만 국영 섬유회사의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앞서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장관은 정부의 이번 방침이 글로벌 무역 관세 인상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전략’이라며, 섬유 산업의 기술 경쟁력 유지와 투자 지속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영 섬유회사 설립이 향후 10년간 연간 섬유 수출액을 4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장기 로드맵의 일부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섬유·의류 산업은 2024년 기준 119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한 주요 비석유 가스 수출 산업이다. 최대 수출 시장은 미국이지만, 도널드 트

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부과한 높은 수입 관세로 경쟁력이 약화된 상태다. 인도네시아가 의류에 대한 관세 면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미국 시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있다. 재계에서는 국영기업 설립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의 신따 깸다니 회장은 20일, “섬유 국영기업 설립은 가치사슬 전반의 업계 참여를 전제로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며 “정부가 직접 시장 참여자로 나설 경우 민간 투자를 밀어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영기업이 낮은 자금 조달 비용과 정책적 우대를 받는 구조적 이점을 지닌 만큼, 적절한 협력 설계가 없다면 시장 왜곡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뿌라마디나 대학의 경제학자 위자안또 사미린 역시 정부가 스

리텍스 구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20일, “아직 영업 중이지만 투자와 운영 강화가 필요한 기업들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며 “60억 달러는 막대한 금액이며,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도 있다”고 말했다. 과도한 국가 개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민간 기업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야에 정부가 직접 진출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섬유·의류 산업은 약 396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 전체 고용의 약 20%에 해당한다. 해당 산업은 2025년 1~9월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97%를 차지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정겨운 우리말

숫밀빠 : 지게에 매여 있는, 지게를 지는 끈
예)가득 나뭇짐을 해 온 태호는 힘겹게 지게 밀빠를 어깨에서 빼냈다.
숫밀알 : 암탉이 제 자리에 바로 찾아들도록, 닭둥지에 넣어 두는 달걀.
(달걀은 ‘닭의 알’달기알)달갈’로 변형되어 표준어로 된 것으로 봅니다.)
밀알 =소란巢卵
※밀알을 넣어야 알을 내어 먹는다.->무슨 일이든 공이나 밀천이 들어야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



숫밀정 : 젓먹이가 똥을 누는 횃수.
예)밀정이 사납다.
숫밀턱구름 : 땅 위로 바짝 내려앉은 구름=하층운下層雲

단국대학교 한문교육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졸업 문학박사
중부대 명예교수
한국대학교수협의회 회장
한국어문화회 회장
저서 : 한국어문화방법의 50여권

중고 봉제기계, 봉사 및 악세사리, 매입
PT. SHINHAN GLOBEL
SHIN H. G +62 8581 1369 4992
Kakao ID 6shg10



유성 종합건설

PT. YUSUNG JAYA ABADI

기술로 짓고 신뢰로 완성합니다.

**건설 기계 전기 배관
정수 및 폐수처리시설**







유성열 대표 : 0812 8037 0303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Raya CurugPos Bitung15810
yusungjaya1@hotmail.com / 021 598 0222

46년간 ‘어른 키 세 배’ 내려앉은 자카르타... ‘지반 침하 상징물’

자카르타 서부 따만사리 지역의 꼬따 뚜아(kota Tua) 인근 깔리 브사르 다리에는 ‘자카르타 지반 침하 상징물(Tugu Penurunan Tanah Jakarta)’이 세워져 있다.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도시가 직면한 환경 위기를 알리는 듯하다. 5일 콤포스닷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에 설치된 이 상징물은 유리나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된 높이 4.5미터의 가늘고 직선적인 형태로,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의 웅장한 건축물들 사이에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일부 방문객들은 이 상징물에 적힌 설명을 읽거나 사진을 촬영하며 지반 침하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다.



▲자카르타 꼬따뚜아에 세워진 자카르타 지반 침하 상징물(Tugu Penurunan Tanah Jakarta) (사진=콤포스닷컴/Dian Erika)

상징물의 높이가 4.5미터는 1974년부터 2020년까지 46년간 자카르타 전역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의 심각성을 상징한다. 상단·중단·하단에는 각각 1974년 기준 북부, 서부,

동부 자카르타의 지표면 높이를 표시한 안내판이 설치돼 있으며, 하단 금속판에는 지반 침하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설명이 인도네시아어, 영어, 접자로 병기돼 있다.

안내문에 따르면 자카르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반이 내려앉는 도시 중 하나로, 주요 원인은 과도한 지하수 사용이다. 지하수 과다 채취로 점토층이 수축하면서 지표면이 마른 스펀지처럼 내려앉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지반 침하는 서부 자카르타 쟁까렝(Cengkareng), 동부 자카르타 짜꿁(Cakung), 북부 자카르타 무아라 바루(Muara Baru) 등에서 관측됐다. 해당 수치는 1974~2014년 자카르타 산업에너지국(DPE) 자료와 2014~2020년 위성 레이더 기법(InSAR) 데이터를 종합해 산출됐다. 상징물에는 성인 남녀 평균 신장과 비교한 도표도 함께 표

시돼, 46년간의 지반 침하가 성인 키의 약 세 배에 달하는 규모임을 보여준다. 지반 침하는 건물 손상뿐 아니라 대규모 홍수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기념비는 한 번 내려앉은 땅은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도, 지하수 사용 절감 등으로 침하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이 상징물은 자카르타 주정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가 공동으로 조성했으며, JICA는 지반 침하 대응을 위한 기술 이전에도 참여했다.

[콤포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한가지라도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인도네시아 건설환경에 최적화 되어있는 **신화**는 고객의 마음에 신뢰를 심어주는 건설기업입니다.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성공전략을 **신화**가 함께 하겠습니다.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PT. SHINHWA TECHNO PLANT
 Kawasan Industri Jababeka II
 Jl. Industry Selatan 8 Blok EE-6P Cikarang,
 Bekasi 17530 Indonesia
 Tlp. 021-8984-1283 Fax. 021-8984-1284
 Email. shinhwatechno0408@gmail.com



PT. BIC JAYA INDONESIA

작업환경측정(K3) / 근로자 건강검진(MCU) / 사내클리닉(In House Clinic)부문
인도네시아 정부(DEPNAKER) 대행기관

인도네시아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기관, 한국 기업들의 든든한 산업보건 환경 지킴이!



UTAMAKAN 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

BIC은

- 작업환경측정(K3)/산업보건 환경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최초 한국계 인도네시아 정부(노동부) 대행기관
-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업체 연 1회 작업장 환경측정/근로자 건강검진 법적 의무사항
- 한국에서 노동부 지정 산업보건기관 운영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기술, 노하우 축적
-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검진, 사내 클리닉 (In House Clinic) 운영을 패키지로 일괄 수행
- 40여년간 한국에서 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 관광부, 노동부, 할랄청 대표부 역할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각별한 협력관계 유지, 우리 기업들의 대 인도네시아 정부 애로사항 해결지원



노동부 장관 BIC 방문 (2022.12)



노동부 차관 BIC 방문 (2023.12)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임명 (2024.5)



수하르토 대통령 BIC 주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 지정 (1993~2007)

www.bicjayaindonesia.com

JAKARTA : Wisma Staco 6F, Jl. Raya Casablanca Kav. 18 +62 21 3049 0114 bicjaya.id@gmail.com

KOREA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57 부산 인도네시아센터(BIC) +82 51 365 0041 www.bic-korea.com

인니서 확인한 K-콘텐츠의 현재와 확장성... ‘K-life K-live HUG’ 콘서트 성료



▲‘K-life K-live HUG’ 콘서트 하이라이트 공연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K-life K-live HUG 콘서트’가 전석 만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약 5천 석 규모의 객석이 모두 채워진 이번 공연은 인도네시아 내 K-콘텐츠의 높은 대중성과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미 좌석이 모두 소진된 상황에서 공연 당일 현장에서는 노쇼 티켓을 구하려는 K-팝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이번 콘서트에는 민호, 하이라이트 등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K-팝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올라 공연장을 뜨겁게 달궜다. 특히 민호의 신곡 무대에서는 관객들이 한국어 가사를 함께 따라 부르는 대규모 떼창 장면이 연출돼, K-팝 콘텐츠에 대한 현지 팬들의 높은 몰입도를 실감하게 했다. 하이라이트 역시 데뷔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변함없는 인기를 증명하며 공연 내내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콘서트가 진행된 NICE PIK2(누산타라 국제 컨벤션 센터) 공연장 내에서는 K-콘텐츠

연관 산업을 대표하는 뷰티·식품·라이프스타일 분야의 현지화 기업과 브랜드들이 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체험형 프로모션도 함께 선보였다.

특히 한국관광공사, 주인도네시아한국문화원, 한국무역협회(KITA)가 운영한 한국 체험 부스에는 많은 인도네시아 관람객이 몰리며 체험을 위해 긴 대기 줄이 이어지기도 했다.

관객들은 공연 관람과 동시에 한국 콘텐츠 기반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었으며, 이는 K-팝을 중심으로

한 문화 콘텐츠와 소비재 산업 간의 자연스러운 연결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현장을 찾은 업계 관계자들은 “K-팝을 중심으로 한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음악을 넘어 뷰티와 식품 등 실물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의 잠재력은 여전히 크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인도네시아 창조경제부는 이번 관측전 및 연계 공연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K-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실질적인 수출 및 유통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번 ‘K-life K-live HUG 콘서트’는 단순한 K-팝 공연을 넘어, K-콘텐츠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이미 대중문화이자 산업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자카르타경제신문]

코린도 그룹 비마루나 자야, 인니 관세청 AEO 인증 획득... 한국계 물류기업 최초

코린도 그룹의 물류 계열사인 비마루나 자야(PT Bimaruna Jaya, 이하 BRJ)가 인도네시아 관세청으로부터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을 공식 획득했다고 밝혔다.

AEO 인증은 관세청이 기업의 법규 준수, 내부 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및 물류 보안 관리 수준을 엄격히 심사하여 공인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을 통해 BRJ는 인도네시아에서 AEO 인증을 획득한 최초의 한국계 물류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BRJ는 이번 인증을 통해 운송, 화물 운송 주선(포워딩), NVOCC, 컨테이너 야드 운영, 창고 운영, 혼재 화물 운송, 통관 취급 등 총 7개 분야에서 AEO 인증을 확보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내 물류 기업 중 가장 광범위한 인증 범위에 해당한다.

AEO 인증 기업은 통관 절차 간소화, 서류 및 현물 검사 비



▲코린도 그룹 비마루나 자야(PT Bimaruna Jaya) (사진=코린도 그룹 홍보실)

율 축소, 우선 통관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통관 시간과 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또한 국가간 상호인정약정(MRA)을 통해 해외 협력국에서도 동일한 통관 편의를 적용받을 수 있어, 글로벌 공급망 운영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BRJ 김원익 과장은 “이번 AEO 인증은 BRJ가 일관되게 유지해 온 보안 및 법규 준수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물류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내 파트너사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비마루나 자야는 1990년에 설립된 종합 물류 기업으로, 6만7,904m2 규모의 부지와 24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트럭 300대를 보유하고 있다. 수출입 통관 및 국내외 물류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도네시아 물류 시장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코린도그룹 홍보실/자카르타경제신문]

나이키 에어 맥스 고어돔 로우 공식 이미지 공개 부츠의 다음 챕터.

나이키가 에어 맥스 고어돔 로우 ‘블랙’의 공식 이미지를 공개했다. 이번 스니커는 ACG 무드가 짙은 고어돔의 러기드한 인상을 유지하면서도, 로우컷으로 다듬어져 활용도 높은 실루엣으로 선보여졌다.

버전에서는 측면의 인셋 스우시가 힐 카운터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형태로 설계돼, 하이 모델과 비교했을 때 실루엣 변화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났다.



터그와 칼라는 패딩 처리로 마감돼 착화 시 안정감을 확보했으며, 솔 유닛에는 폴 렌즈 에어 맥스 쿠셔닝이 적용됐다. 끝으로 아웃솔에는 부츠에서 이어진 듯한 러그 패턴이 유지돼 접지력을 강화했다.

나이키 에어 맥스 고어돔 로우 ‘블랙’은 2026년 중 나이키 공식 웹사이트 및 일부 리테일러를 통해 출시될 예정이다.

HYPEBEAST

BEST SELLER

PT. Indokon Multi Sarana는 실내·실외 비디오트론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No.1 선도 기업으로, 인테리어 시공 전문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략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풍부한 경험과 탄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T. Indokon Multi Sarana

신뢰할 수 있는 **비디오트론 솔루션 & 인테리어 시공** 전문 기업

PT. Indokon Multi Sarana는 정밀한 기획, 프리미엄 자재, 그리고 전문적인 시공 기준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미적 가치, 높은 완성도를 갖춘 비주얼 및 공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선명한 디스플레이, 내구성 높은 시스템, 그리고 철저한 납기 준수를 실현합니다.

정부 기관을 비롯해 산업 단지, 오피스, 상업 공간, 공공 시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www.indokonmultisarana.com
(+62)21-2263-2551
Jakarta, Indonesia

흥대 신발 편집숍 격전지에 ‘무신사킵스’ 합류

신발 비중 70% · 80개 브랜드 큐레이션 강남 · 성수점 등 올해 10개점 오픈 목표

신발 멀티숍의 격전지 흥대 상권에서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다. 흥대입구역 일대에는 이미 주요 슈즈 편집숍이 밀집해 있다. 9번출구 인근에는 ABC마트 매장과 폴더(FOLDER)가 자리잡고 있다. 반대편 1번 출구 앞에는 슈펜 흥대점이 운영 중이다. 여기에 지난 9일 ‘무신사킵스’가 슈즈 멀티숍을 새롭게 선보이며 경쟁에 합류했다. 무신사킵스는 흥대 상권에서 슈즈멀티숍 경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무신사킵스 흥대점은 무신사가 처음 선보이는 슈즈 멀티숍이다. 2001년 신발 커뮤니티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으로 출발한 무신사의 뿌리와 정체성을 반영한 공간이다. ‘무신사’라는 이름의 본래 의미가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매장이라는 평가다. 의류 편집숍 무신사, PB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에 이어 신발 멀티숍으로 카테고리를 확장한 셈이다. 이미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아웃도어, 뷰티, PB 등으로 확장 카테고리를 넓혀온 상태다. 무신사킵스는 흥대입구역 9번 출구를 나와 무신사스탠다드를 지나 도보 약 5분거리인 흥일로 길에 위치해 있다. 매장 바로 앞에 건물목이 있어 유동 인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머무는 자리다. 과거 H&M, 풋락커가 자리했던 곳이다.

지난 16일 무신사킵스 앞 건물목에는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많은 인파가 오갔다. 맞은편에는 올리브영이 위치해 상권 시너지도 눈에 띈다. 외관은 화이트 톤의 깔끔한 건물에 ‘MOUSINSA KICKS’ 은색로고만을 강조했다. 한 개 층에 세 개의 대형 창을 낸 구조로 개방감이 크다. 매장은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총 1124㎡(약 340평) 규모로 조성됐다. 트렌디한 스니커즈부터 퍼포먼스 슈즈까지 폭넓게 구성했



▲지난 9일 ‘무신사킵스’를 새롭게 선보이며 흥대 신발 편집숍 경쟁 구도에 합류했다. 사진=정정숙 기자

다. ABC마트, 슈마커 등과의 차별점은 해외 브랜드뿐 아니라 국내 브랜드까지 아우르는 슈즈 큐레이션에 있다. 매장에는 약 80개 브랜드가 입점해 있으며 총별로 콘셉트와 분위기가 뚜렷하게 나뉜다. 매장 내 신발 비중은 약 70% 수준이다.

글로벌부터 국내 까지 아우르는 슈즈 큐레이션

1층은 스포츠와 캐주얼 중심으로 컬러와 무드가 비교적 강하다. 위층으로 갈수록 아웃도어·레더·라이프스타일 요소가 자연스럽게 섞인다.

트렌디한 슈즈에 어울리는 패션 아이템까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스토어라는 점도 특징이다. 무신사 백, 캡클럽, 무신사 넥스트 아웃도어 등 플랫폼 내 다양한 콘셉트를 오프라인으로 확장했다. 공간 벽면을 신발로 채운 ‘슈즈 월’과 총별 테마 큐레이션을 통해 매장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1층에 들어서면 왼쪽에 팝업 존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현재는 아디다스 팝업이 운영 중이다. 아디다스, 나이키, 노말, 브룩스 러닝, 푸마, 언더아머 등 글로벌 스포츠

슈즈와 러닝 어패럴 제품이 중앙과 슈즈월로 배치했다. 벽면 슈즈 월에서는 전시처럼 슈즈가 구성돼 있어 주목된다. 특히 무신사킵스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익스클루시브 제품도 눈에 띈다. 이날은 푸마의 익스클루시브 제품이 주목을 받았다. 중앙에는 스포츠 의류를 함께 배치했다.

2층에는 전통적인 슈즈 브랜드뿐 아니라 아웃도어·의류가 함께 입점했다. 안쪽 공간에는 ‘넥스트 아웃도어 존’이 마련돼 엠브로, 고요웨어, 웰터 익스페리먼트, 아크테릭스 의류와 슈즈를 선보인다. 영 무신사 플레이어 존에는 매드, 데상트, 디미토 제품이 진열돼 있다. 푸마·살로몬·반스·케이스위스 등 무신사킵스의 대표 브랜드도 함께 볼 수 있다. 신발과 의류를 함께 제안하는 구성은 ABC마트, 폴더 등과의 뚜렷한 차별점이다.

3층은 오프라인에서 자주 보기 어려운 레더 캐주얼 슈즈가 모였다. 부츠와 시즈널 제품을 중심으로 락피쉬웨더웨어, 소렐, 어그, 솔트앤초콜릿 등을 선보인다. 마크모크, 로맨틱무브 등 무신사 플랫폼에 입점한 국내 슈즈도 다

수 포함됐다. 다른 편집숍에서 보기 힘든 국내 브랜드 비중이 높은 점이 특징이다. 무신사가 보유한 판매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내외 구분 없이 소비자 반응이 검증된 브랜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러닝·아웃도어·레더까지 총별 구성 “온라인 인기 제품, 오프라인서 먼저 경험”

무신사킵스 매장은 올해 10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흥대점(1월)을 시작으로 강남점(3월), 성수점(4월) 오픈이 예정돼 있다. 나머지 매장은 하반기 중으로 장소와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신사 관계자는 “숍인숍, 가두점 등 다양한 매장 형태와 여러 지역을 검토하

사 스포츠본부 본부장은 “앞으로 오픈할 성수, 흥대 등 매장도 큰 흐름은 같지만 일부 안테나 매장은 입점 신발 브랜드의 구성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이거나 콘셉트를 더 강화할 수 있다”며 “상권 특성과 브랜드 협업 강도에 따라 구성을 달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레스모아 등 슈즈 멀티숍의 실패 사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시장은 저가보다는 ‘가치 있는 소비’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이동했다”며 “무신사가 잘 할 수 있는 경험을 오프라인에서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고영대 본부장은 소비자 민감도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무신사킵스는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받는 제품을 오프라인에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이 될 것



▲1층 팝업존에서는 아디다스 제품을 볼 수 있다. 사진=정정숙 기자

고 있다”고 말했다. 무신사킵스의 가격대는 저가부터 50만 원대 이상까지 폭넓게 구성돼 있다. 향후에는 러닝 중심 콘셉트나 데일리 러닝화뿐 아니라 퍼포먼스 기능 슈즈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주 가격대는 ABC마트 등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온라인과 연동돼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구조이며 QR 기반 구매 방식은 기존 무신사 스토어와 동일하다. 고영대 무신

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무신사의 주 고객층은 10대, 20대가 중심이다. 과거 리셀 시장을 주도했던 30~40대 외는 다른 소비층이 형성되고 있다. 매장 타겟 역시 특정 연령대보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금 가장 좋은 제품’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www.cosmofamily.com

더 가볍게, 더 강하게.
인도네시아 최초 SNI 인증 GFRP 보강근 제조사.
부식 없는 철근 대체 솔루션
Cosmo GFRP Indonesia.

Office : Menara Bidakara 1, 21st Floor, Unit 2152 & 2156 Jl. Jenderal Gatot Subroto Kav. 71-73 Kelurahan Menteng Dalam, Kecamatan Tebet Kota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2870

Factory : Kawasan Industri Suryacipta City of Industry, Jalan Surya Madya XIV, Kavling I-67A3, Kabupaten Karawang, Provinsi Jawa Barat 41362

Tel. : +62 811 9630 8805
Email : jaydentyp@cosmogfrp.co.id



GFRP WIREMESH



GFRP REBAR

우리가 알던 ‘뉴발란스’가 아니다, 유광 가죽의 뉴발란스 게이터 런



뉴발란스가 어떤 모습인지 안다고 생각했겠지만, 유광 페이턴트 가죽의 ‘히터’를 내놓는 순간, 게임의 판은 완전히 달라졌다.

뉴발란스는 작년에 정말, 정말 좋은 한 해를 보냈다. 액션 브론슨, 살레헤 뱀버리 같은 인물들과의 화제성 높은 협업부터, 알러데일과 RC56 같은 매력적인 신규 실루엣까지. 뉴발란스는 그야말로 ‘아주 뉴발란스다운’ 행보를 이어갔다. 하지만 2026년으로 접어들며, 보스턴 브랜드는 뉴발란스 게이터 런을 통해 대대적인 키 체인지를 감행했다.

첫인상만 보면, 게이터 런은 작년에 한창 유행했던 플랫폼 트레이너 트렌드의 한복판에서 나왔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모델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로우 프로파일 스니커즈가 깔끔하고, 절제돼 있으며, 어딘가 지나치게 접잡은 데 비해, 이 모델은 디테일을 전혀 아끼지 않았다.

‘블랙’과 ‘새도 레드’ 두 가지 컬러웨이로 출시되는 게이터 런은 토박스부터 힐까지 이어지는 유광 페이턴트 가죽으로 운문을 휘감고 있다. 여기에 가짜 크로커다일 텍스처

가 전체적으로 더해지는데, 이 디테일이 바로 이름에 들어간 “Gator”를 설명해준다.

아래에는 프레시 폼 X 쿠셔닝과 AT 트레드 아웃솔이 결합돼 있다. AT 트레드는 보통 뉴발란스의 하이킹 모델에 쓰



이는 아웃솔이기 때문에, 이 신발이 레이크 디스트릭트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건 아니다. 물론, 정말 원한다면 거기서 신을 수도 있겠지만 추천하진 않는다.

마지막으로, 뒤쪽을 감싸 올라오는 솔 디자인이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가 있다. 최근 몇 달간 틱톡에서 가장 사랑받은 모터스포츠 타일 스니커즈, 푸마 스피드 캣을 알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연결고리가 보일 것이다.

이런 변화는 지금의 뉴발란스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한때는 기술적인 러닝화, 혹은 ‘아버지가 신을 법한 운동화’의 대명사로 알려졌

던 브랜드가, 최근 몇 시즌 동안은 의도적으로 더 표현적이고, 패션적인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BZORB 2000을 보자. 한 레딧 이용자는 이 모델을 두고 “베이비 팻 벨루어 트레이닝복을 스니커즈로 만든 느낌”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또 하나의 예는 SC 엘리트 V5로, 날카롭고 각진 실루엣을 통해 브루탈리즘 건축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두 모델 모두 기존의 뉴발란스와는 전혀 닮지 않았지만, 결국 2025년 최고의 스

니커즈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제 뉴발란스는 단순히 자신들이 늘 해오던 것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대신, 리스크를 감수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이 전략은 분명히 효과를 보고 있다.

뉴발란스 게이터 런은 향후 몇 주 내로 뉴발란스 공식 채널과 일부 글로벌 셀렉트 숍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정확한 정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약 12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20만~21만 원대에 해당한다.

아디다스, 데일리 러닝 위한 ‘슈퍼노바 라이즈 3’ 출시 전작 대비 더 가볍고 부드러워진 ‘드림스트라이크’ 등 아디다스만의 기술 적용



▲남녀 모두 동일한 기준의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완성된 ‘아디다스 슈퍼노바 3’는 미국 족부의학협회에서 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풋웨어로 인정 받았다. © 아디다스

아디다스가 러닝의 시작부터 끝까지 편안함을 선사하는 러닝화 ‘슈퍼노바 라이즈 3’를 출시했다.

러너들의 의견에 집중해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러닝의 마지막까지 러닝의 즐거움이 이어지도록 제작된 ‘슈퍼노바 라이즈 3’는 전작 대비 5% 가볍고 20% 더 부드러워졌으며, 16% 더 많은 폼 볼륨을 적용한 ‘드림라이크’와 미드솔을 통해 안정적인 쿠셔닝을 제공하며 레이스 완주를 목표로 하는 러너들이 데일리 러닝을 통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발에 자연스럽게 밀착되는 ‘프라임위브 어퍼’로 쾌적한 착용감을 선사하며, 발의 구조에서 영감을 받아 발뒤꿈치부터 발끝까지 부드럽고 안정감 있게 이어지도록 설계된 ‘라이트트랙시온’ 아웃솔로 다양한 지면에서도 뛰어난

접지력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 러너들을 위해 남성 제품에서 사이즈만 줄인 제품이 아닌 여성의 평균적인 발 모양에 맞춰 아치 위치를 조정해 최적화된 착용감을 제공한다.

아디다스 러닝화 관계자는 “대다수의 러너는 러닝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속되는 편안함을 원하고 있다”며 “런들의 니즈에 맞춰 쿠셔닝과 안정성을 강화한 ‘슈퍼노바 라이즈 3’로 더욱 즐거운 러닝 라이프를 즐기길 바란다”고 했다.

[프라임 경제]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gaeto@gmail.com

KYUNGWON is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air compressors
KYUNGWON Compressor is manufactured in Korea with 100% Korean Technology

나이키 화제의 신상 스니커즈, 사실은 운동화 아니라 부츠라고? 잘 듣고 꼼꼼이 생각해보면, 꽤 말이 된다.



지난 주말, 스우시 디자이너 프랭크 쿠커가 인스타그램에 나이키 에어 맥스 고어돔 로우를 살짝 공개했다. 그리고 거의 즉시 사람들은 이걸 에어 맥스 1의 재림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다. 웃긴 건, 이 신발이 말 그대로 ‘부츠’ 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반응 자체가 지금의 스니커 문화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나이키가 뭘 내놓든

우리가 결국 열광하고 말 거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에어 맥스 고어돔은 2000년에 아웃도어 감성의 ACG 라인에서 처음 등장했다. 팀버랜드의 6인치 부츠와 정면 승부를 벌이기 위해 만들어졌고, 당시 실제로 꽤 잘 나갔다. 2007년에는 웨일이 ‘나이키 부츠’ 라는 곡을 아예 따로 만들었을 정도다. 문

화적 영향력, 인정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슈프림과의 협업, 그리고 미국 래퍼 예트와의 협업 등 꽤 많은 콜라보도 몇 차례 거쳤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나이키는 이 모델을 반으로 잘랐다. 에어 맥스 고어돔 로우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첫 컬러는 토프이며, 곧 블랙 컬러도 출시될 예정이다. 오리지널 모델의 모든 요소를 더 짧고, 더 일상적으로 신기 좋은 실루엣에 담아냈다.

어퍼는 탄 컬러의 스웨이드로 덮여 있고, 측면과 칼라를 따라 편칭 디테일이 들어갔다. 레이싱 시스템에는 반짝이는 D링 아이렛이 적용돼 제대로 된 하이킹 부츠 느낌을 준다. 전체는 큼직하고 묵직한 미드솔 위에 올라가 있으며, 에어



맥스 버블이 들어가 있어 착화감은 탄탄하면서도 폭신하다. 아래쪽에는 접지력이 좋은 아웃솔이 깔려 있고, 여기에 유니버시티 레드 컬러 포인트가 더해졌다.

뒤꿈치에 찍힌 작은 스우시를 못 봤다면, 이걸 디엠즈나 프라카스, 혹은 파라부트의 신발로 착각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묘하게 미니멀하고, 전혀 나이키답지 않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핵심이다. 최근 몇 달 사이, 열성적인 스니커헤드들 사이에서는 과하게 하입된 러닝화나 복각 조던에

서 벗어나 좀 더 ‘어른스러운’ 신발로 눈을 돌리는 흐름이 뚜렷하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트렌드 피로감도 있고, 30대에 접어든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메시 트레이너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시점이 오기도 한다. 그런 맥락에서 스니커와 부츠의 중간쯤 되는 이런 신발은 꽤 설득력이 있다. 나이키 신발이면서도 나이키처럼 보이지 않는 신발. 어쩌면 지금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걸지도 모른다.

나이키 에어 맥스 고어돔 로우 토프는 수주 내로 나이키 공식 채널, 스니커즈 앱, 그리고 일부 글로벌 셀렉트 숍을 통해 출시될 예정이다.

GQ

러닝화는 소모품이다. 근데 보통 언제 바꿔야 할지는 잘 모른다. 밑창이 남아 있으면 괜찮아 보이고, 애착이 생기면 더 신고 싶어진다. 하지만 발과 무릎은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다. 숫자와 충격에 반응한다.

보통 러닝화의 수명은 500~700km라고 한다. 브랜드들이 공통으로 제시하는 범위다. 이 수치는 ‘갑자기 못 신게 되는 시점’ 이 아니라, 충격 흡수 성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구간에 가깝다. 아웃솔(밑창)은 멀쩡해 보여도, 미드솔(중창)은 이미 주저앉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러닝화의 핵심은 고무가 아니라 폼이다. 미드솔은 시간이 아니라 압축 횟수로 늙는다.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체중의 2~3배 하중이 실린다. 그 압력이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되면 폼은 원래의 복원

러닝화 수명, 몇 km가 지나면 바꿔야 할까? 신상이 나왔을 때 같은데.

력을 잃는다. 처음 신었을 때의 폭신함이 사라지고, 통통 튀는 반발력이 둔해진다. 이 상태로 계속 달리면 충격은 고스란히 발바닥, 발목, 무릎으로 올라간다. 러닝화는 더 이상 완충재가 아니라 얇은 고무 덩어리가 가까워진다.

체중과 러닝 스타일에 따라 수명은 더 빨리 줄어들 수 있다.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뒤꿈치 착지가 강한 러너라면 400~500km에서도 교체 신호가 온다. 반대로 가벼운 체중에 미드풋 착지, 부드러운 페이스로 달린다면 700km 이상 버티는 경우도 있다.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같은 감각은 가장



믿기 어려운 기준이다. 발은 적응하고, 관절은 침묵한다.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호도

있다. 미드솔에 주름이 깊게 잡히고, 좌우 비대칭이 심해졌다면 이미 많이 신었다는 증거다. 예전보다 러닝 후 발바닥이나

무릎이 유독 묵직하게 느껴진다면, 몸이 먼저 항의하는 중이다. 같은 코스, 같은 페이스인데 피로도가 달라졌다면 러닝화를 의심하자.

러닝화를 오래 신는다고 해서 경제적인 것도 아니다. 수명이 다 된 신발로 달리다 보면 부상 위험이 커지고, 한 번 다치면 몇 주에서 몇 달을 쉬게 된다. 그동안 못 달린 시간과 병원비를 생각하면, 러닝화 한 켤레는 오히려 싼 편이다. 러닝화는 아껴 신을 물건이 아니라, 정해진 역할을 다하면 보내줘야 할 장비다. 기록해 두자. 러닝 앱이든 메모든, 누적 거리를 체크하자. 500km를 넘기면 교체를 고민하고, 700km를 넘겼다면 전 애인 처럼 미련 없이 보내주자. 러닝화가 평생 함께할 파트너는 아니니까. 즐겁게 잘 달렸다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

GQ

톱슨 목금형(톱슨발형) 아크릴 커팅, 밴딩가공

생산성 향상
짧은제작기간
정밀성
품질 향상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뼈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톱슨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톱슨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 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 ://www.bsllaser.com

Steel Laser Cut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2 (덕포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1987busan@naver.com
http://www.bsl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톱슨금형, 특수 칼금형

인도네시아 상표 전쟁의 함정... ‘선출원주의’ 가 글로벌 브랜드를 흔든다

인도네시아의 상표 제도가 글로벌 기업에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최대 로펌 중 하나인 Makarim & Taira S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의 저명상표(well-known mark) 입증 방식과 분쟁 사례를 공개하며, 선출원주의(first-to-file)가 지배하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위험을 짚었다.

인도네시아 상표제도의 핵심은 선출원주의다. 출원 시점이 권리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되며, 출원 이전의 해외 사용 이력이나 글로벌 인지도는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글로벌 브랜드가 인도네시아 진출을 준비하는 사이, 현지 제3자가 동일·유사상표를 먼저 출원·등록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대표 사례로 일본 자동차 기업 Toyota의 분쟁이 소개됐다.



▲출처=freepik 특허뉴스

도요타는 자사 프리미엄 브랜드 ‘Lexus’와 유사한 ‘ProLexus’ 상표를 사용·등록한 인도네시아 시도아르조 지역의 현지 기업을 상대로 상표권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도요타는 ‘ProLexus’가 자사의 ‘Lexus’ 명성을 편승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쟁점은 상표의 유사성이 아니라 등록 시기였다.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의 ‘ProLexus’는 2010년 등록된 반면, 도요타가 인도네시아에서 ‘Lexus’ 및 ‘Lexus Racing’을 등록한 시점은 그보다 2년 뒤였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앙 상사법원(Central Jakarta Commercial Court)은 현지 기업의 출원이 악의적이었던 증거가 없고, 인도네시아 상표법상 등록 후 5년 이내에만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도요타의 청구를 기각했다. 상급심인 인도네시아 대법원 역시 동일한 판단을 유지했다. 유사한 맥락에서 독일 자동차 기업 BMW도 인도네시아 의류업체 ‘BMW Body Man Wear’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상품 간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BMW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글로벌 브랜드의 명성만으로는 인도네시아에서 상표권을 쉽게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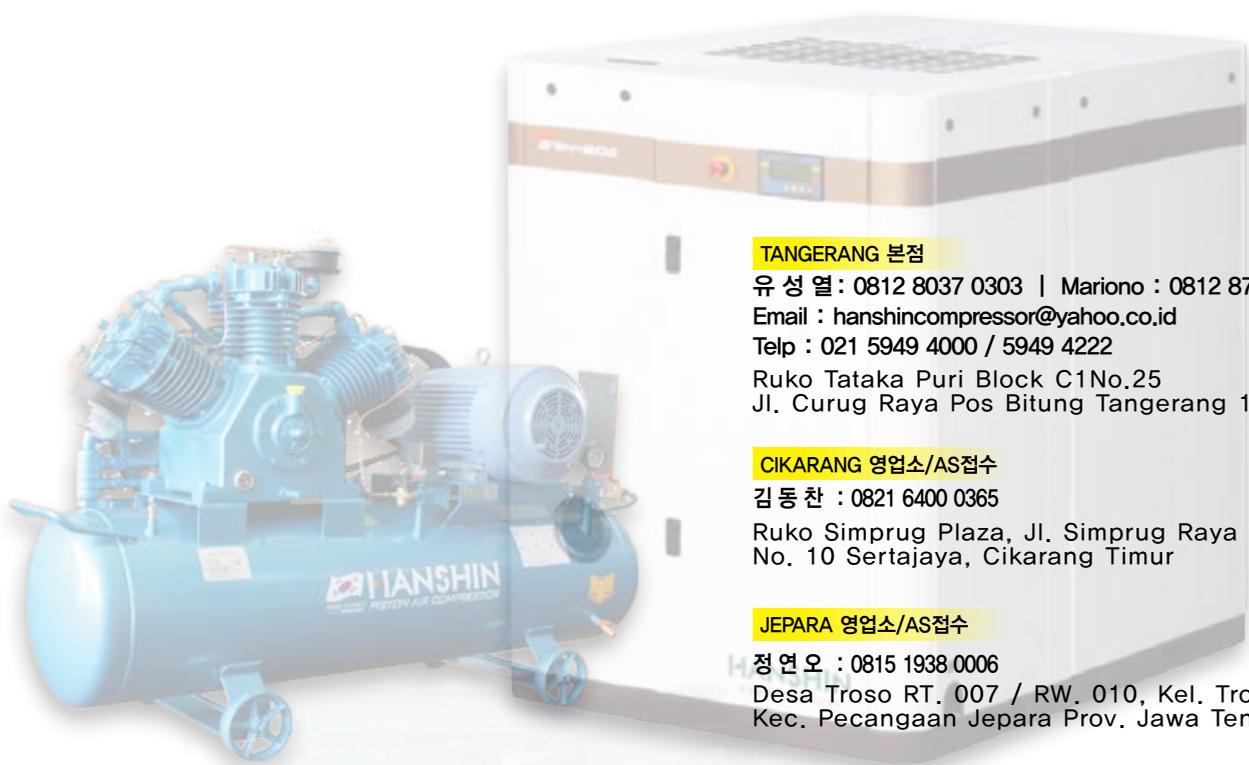
Makarim & Taira S는 인도네시아 상표법 제21조를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동 조항은 선

출원 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저명상표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유사 상표 출원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실제 분쟁에서는 저명성에 대한 엄격한 입증과 출원·등록 시점, 악의성 여부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사전 상표 출원 전략이 곧 시장 진입 전략”이라며, “진출 전 핵심 브랜드와 파생 상표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글로벌 명성에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례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상표 관리의 선제성과 현지 법제에 대한 정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HANSHIN

에어 콤프레셔



TANGERANG 본점

유 성 열 : 0812 8037 0303 | Mariono : 0812 8763 965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CIKARANG 영업소/AS접수

김 동 찬 : 0821 6400 0365
 Ruko Simprug Plaza, Jl. Simprug Raya Blok B2
 No. 10 Sertajaya, Cikarang Timur

JEPARA 영업소/AS접수

정 연 오 : 0815 1938 0006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